

세계 고등교육의 새로운 물결

I. 머리말

한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한 국가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팽창의 과정을 거쳐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팽창속도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 전망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고등교육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더구나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한 국가 내에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고 지역적,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일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 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게 불어나버린 몸집에서 쓸데없는 군살들을 제거하고 균형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다시 말해 세계도처의 수 많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양질의 것들을 골라내어 활성화시키고, 또 이를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평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일까?

분명 이 모두가 단순한 대답이 불가능한 의문들일 것이다. 이 같은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행해질 수 있겠지만, 단번에 명쾌한 대답을 짜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아마도 한국 고등교육이 처한 환경과 위치에 대한 정확한 지표 분석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3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에서 개최된 '2008 APAIE(Asia Pacific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 회의의 기초연설자로 선 OECD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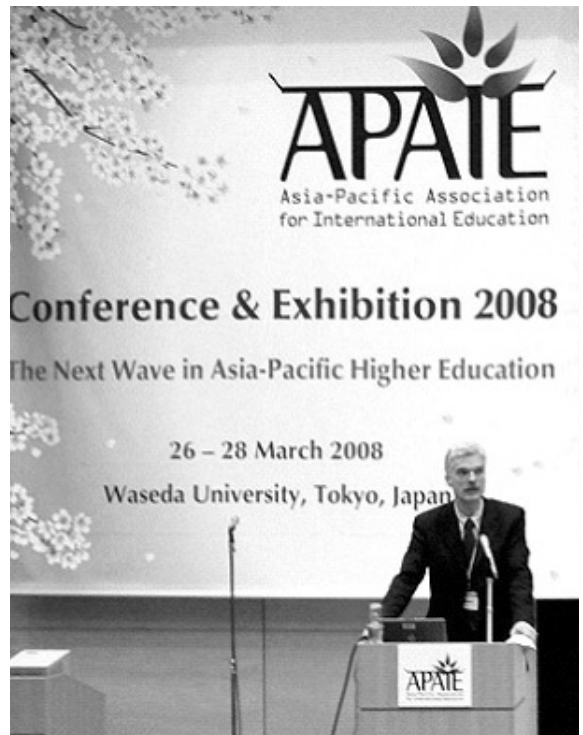


그림 1. APAIE에서 기초연설 중인 앤드리아스 슈라이커
OECD통계·지표부장

계·지표부장 앤드리아스 슈라이커(Andreas Schleicher)가 제시한 분석에 주목하고, 특별히 한국 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 고등교육의 미래적 전망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제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슈라이커는 세계의 수 많은 대학들과 교육 시스템들이

얼핏 보기엔 모두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각각의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차이점들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한다.

세계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과 교육의 형평성이라는 주제를 논할 때 과거에는 학생의 능력수준 변화에 있었던 논의의 초점이 현재는 졸업 비율의 변화 쪽으로 그 방향을 달리해오고 있으며, 미래에는 아마도 그 방향이 입학 비율의 변화 쪽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이는 머지않아 교육 서비스 주체 간의 국제경쟁이 세계 고등교육계의 화두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식과 정보의 전세계적 공유

정보통신혁명은 누구든지 디지털 형식 문서의 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어디에 있든지 서로 간에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의 표준을 제정하는 추세 등은 지리적으로 닿기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 간에도 함께 작

업하고 그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들이 매우 자유로워지고 또 빈번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들은 세계 고등교육 분야에도 분명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현황 분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II. 세계 고등교육의 현황: 양적 팽창 및 그 결과

고등교육 수혜비율 변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추이를 국가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그림 2) 1960년대에 전체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이후 수치 상 변화가 거의 없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순위가 세계 13위로 하락하였다. 반면 1960년대에는 35%의 교육 수혜비율로 전체 조사국가 중 27위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속한 수치 증가로 1990년대에는 97%에 다다르며 1위를 차지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한국이다.



그림 2. 국가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추이

더 주목할 것은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연령별 비율을 조사했더니(그림 3), 한국은 기성세대만을 비교했을 경우 전체 24위에 머물렀으나, 다른 어떤 여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의 젊은 세대 고등교육 수혜 비율에 힘입어 전체 고등교육 수혜비율 면에서는 세계 4위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 증가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 비율의 증가는 세계적인 고등교육 증대 현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 준다.

아래의 <그림 4>는 국가별로 남성 혹은 여성의 대학 교육 참여도가 더 높은 경우의 비율적 수치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의 길이가 짧을수록(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성별 간 참여율이 균등한 것이며 반대로 길수록 어느 한 쪽으로 불균등함을 나타낸다. 또한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를 비교하여 세대별 변화 양상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기성 세대(55~64세)의 경우에는 남성의 고등교육 참여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젊은 세대(25~34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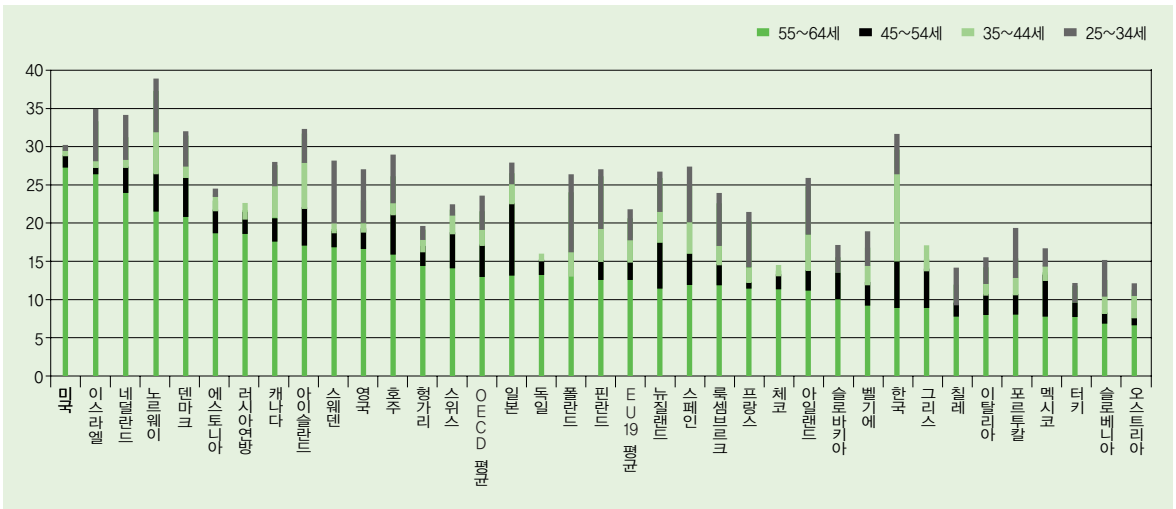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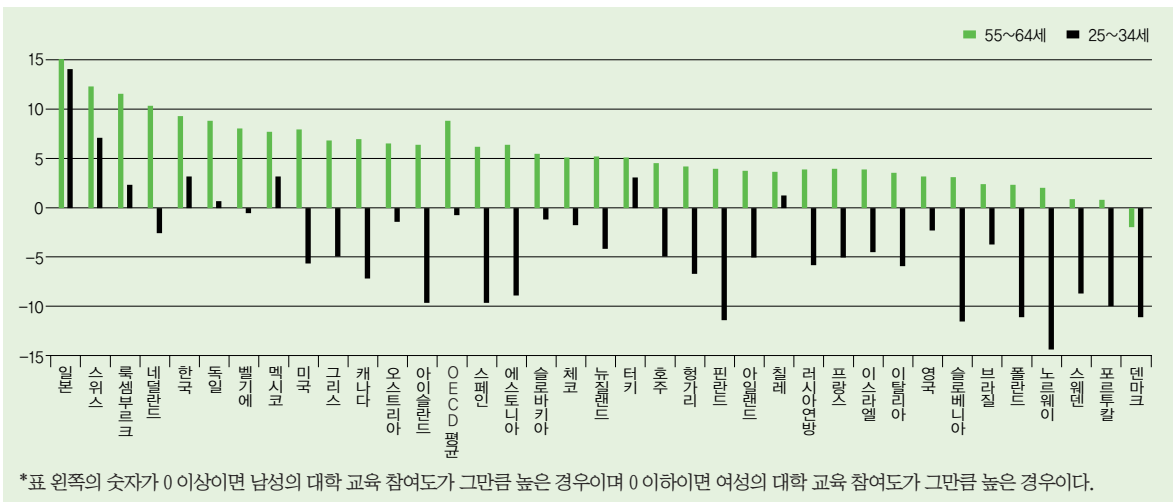


그림 3. 국가별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및 연령별 분포 (2005년)



*표 왼쪽의 숫자가 0 이상이면 남성의 대학 교육 참여도가 그만큼 높은 경우이며 0 이하이면 여성의 대학 교육 참여도가 그만큼 높은 경우이다.

그림 4. 국가별 대학 교육 참여율로 본 성별 간 불균등 지수 비교

려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젊은 세대에서도 여전히 남성의 참여율이 더 높은 쪽으로 기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세대 간 차이가 거의 없이 남성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다. 한국의 경우 성별 간 차이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과 관련하여 슈라이커는 또 다른 단계의 질문을 던진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의 공급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걸맞게 고보수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가?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모든 개인이 대학 졸업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대학 학위의 소지 여부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 향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인가?

고학력자의 증가와 저학력자의 실업률 간 상관관계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그렇지 못한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먼저 살펴보자.

〈그림 5〉의 세로축은 고등학교 졸업자 실업률 대비 중학교 졸업자 실업률을 나타낸다. 즉, 수치가 올라갈수록 하급 학교 졸업자의 상대적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조사대상이 되는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1990년대에 고등교육이 급속도(평균 5.9%)로 팽

창한 9개 국가들을 제1그룹으로, 완만한 속도(평균 2.4%)의 고등교육 증가율을 보인 8개 국가들을 제2그룹으로,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부문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평균 0.1%) 9개 국가들을 제3그룹으로 하였다. 제1그룹의 경우 고등교육의 팽창과 함께 하급 학교 졸업자의 상대적 실업률도 일시적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제2그룹의 경우에도 고등교육의 팽창과 하급 학교 졸업자의 상대적 실업률이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실업률 수치가 오히려 내려갔다. 반면 제3그룹의 경우 2000년대 이후에 하급 학교 졸업자의 상대적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종합해보면 고등교육의 팽창이 저학력자의 상대적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늘어난 대학 학위 취득자 수가 곧바로 노동시장에서 가치 있는 자격요건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불러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슈라이커는 스무 개 국가 중 세 국가를 제외하곤 1997년에서 2003년 사이에 전체적인 소득과 혜택이 증가(독일, 이탈리아, 헝가리의 경우 20%~40%가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 자료를 소개하면서, 대학 교육 증가 속도가 빨랐던 국가일수록 소득과 혜택의 증가율도 높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이 팽창할수록 그만큼 더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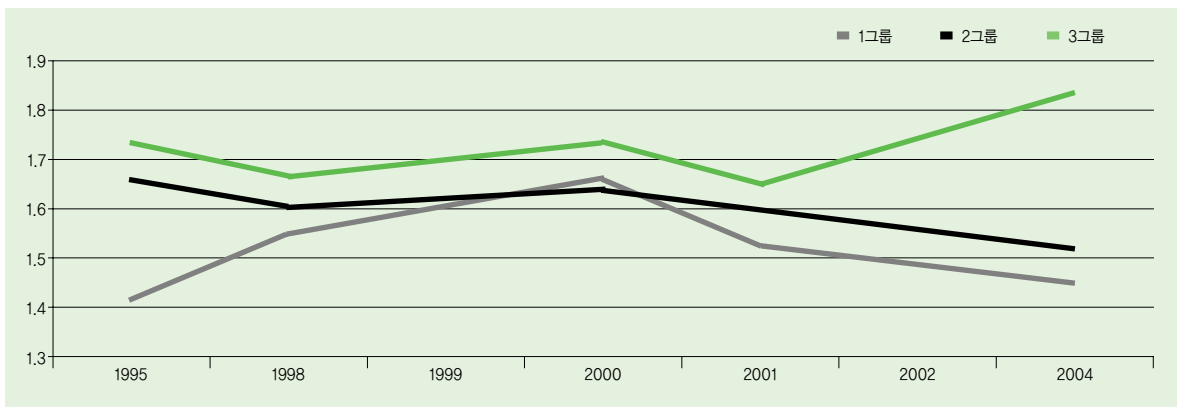


그림 5. 대학 교육 증가율에 따른 그룹별 고등학교 졸업자 실업률 대비 중학교 졸업자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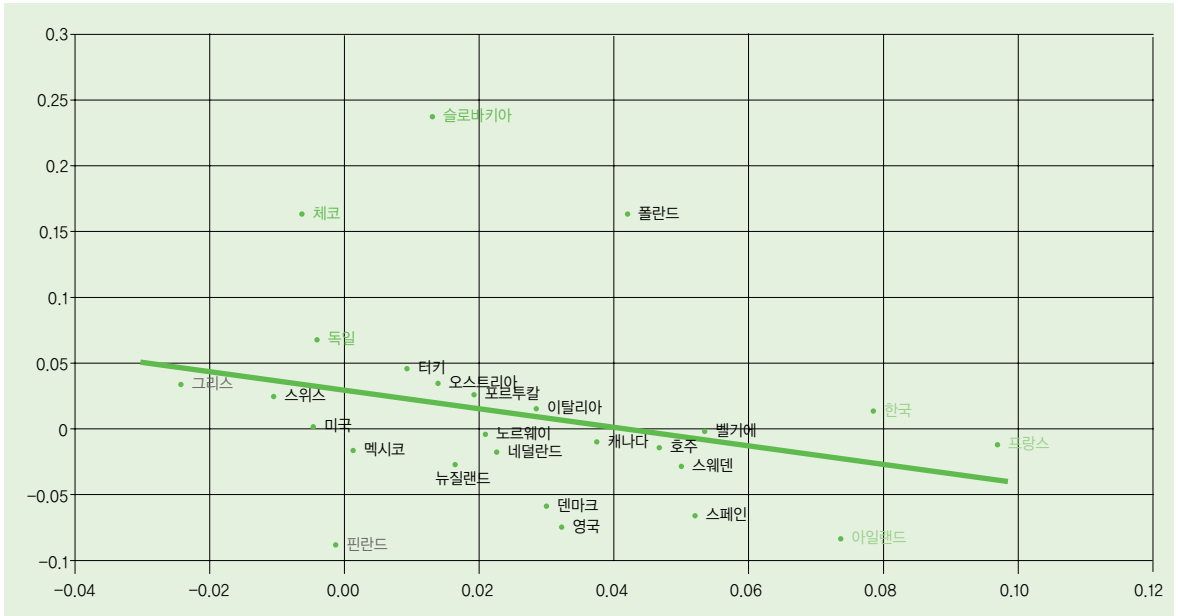


그림 6. 대학교 졸업자 증가율과 중학교 졸업자 실업률 간 상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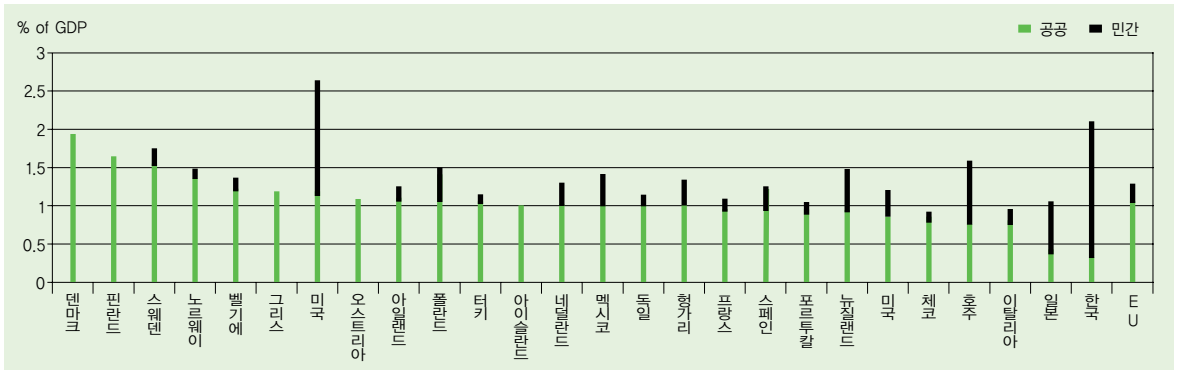


그림 7. 국가별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비율과 민간 및 공공부문의 부담비율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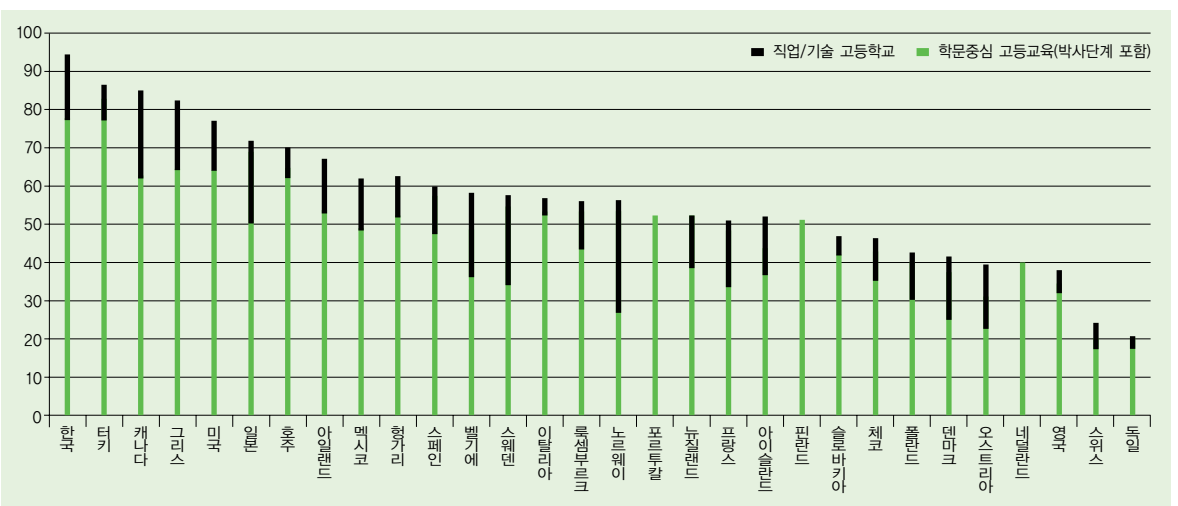


그림 8. 국가별 15세 학생 그룹의 대학 학위 취득 희망 비율 (2003년)

〈그림 6〉에서 가로축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그리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두 기간 사이 고등교육 수혜 인구 변화율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1995년에서 2004년 사이 중학교 졸업자 실업률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살펴 보면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세 국가에서는 고등교육 수혜인구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하급 학교 졸업자 실업률은 증가했다. 반대로 한국, 프랑스, 아일랜드의 경우 고등교육 수혜인구는 증가한 반면 하급 학교 졸업자 실업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그 수치가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고등교육의 팽창이 저학력자의 실업률을 높이는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 재정의 주체

고등교육의 팽창이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기여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림 7〉의 세로축은 GDP 대비 고등교육 부문 지출 비율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이를 국가별로 구분한 각각의 막대 그래프(각 국의 해당 지출비율) 내에서 공공 부담과 민간부담의 분배 정도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담의 재정부담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 100%가 공공부담이다. 슈라이커는 미국의 경우 워낙 고등교육 서비스 수요가 거대해 민간부문의 재정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이라고 소개하였다. 그 외 일본이나 호주 등에서 민간부문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기형적일 만큼 불균형적이다. 이 같은 민간부문의 높은 재정부담 비율로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이 2%를 넘어서면서 전체 조사 대상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EU평균인 1.2%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지금까지 세계 고등교육 현황을 국제 비교를 통해 몇 가지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세계 고

등교육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관해 생각해 볼 차례이다.

Ⅲ. 세계 고등교육의 미래

대학 교육 수요 인구

〈그림 8〉에 따르면 대학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15세 학생 수 비율 조사에서 한국은 그 결과가 90%를 넘는 유일한 국가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 그 수치가 20%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신기할 정도이다.

미래의 교육 수요 인구

그렇다면 미래에 가장 많은 교육 수요 인구를 배출할 국가는 어디일까? 바로 중국과 인도다. 2003년과 2010년 그리고 2015년의 교육 수요 인구를 비교 했을 때〈그림 9〉, 미국의 경우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유럽 연합의 경우 오히려 줄어드는 데 반해 중국과 인도에서는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고등학교 예상 졸업생 수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전문대학 예상 졸업생 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치솟는 교육 수요 인구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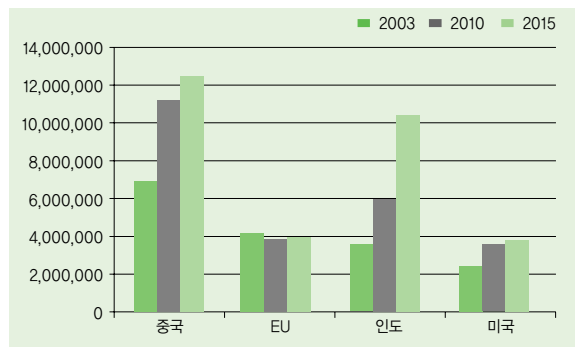


그림 9. 미래 교육 수요 예상 인구 비교

고등교육 분야 국제 학생 이동

고등교육 분야에서 외국인 학생이 유학을 위해 선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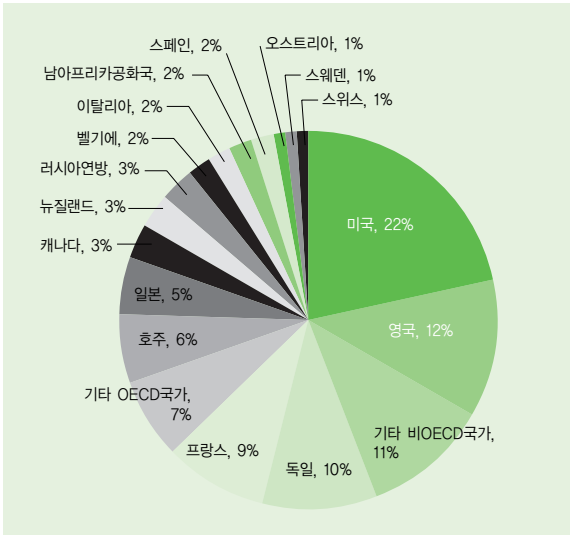


그림 10. 외국 학생이 선택한 유학 목적지(2005년)

최종 목적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그림 10> 미국은 22%의 학생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유학 선호국가 순위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였다. 영국(12%), 독일(10%), 프랑스(9%), 호주(6%)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5%)만이 유일하게 순위 안에 들었다.

고등교육 분야 국제 학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는<그림 11> 호주(17.3%)와 뉴질랜드(17.0%)가 가장 앞서갔으

며, 영국(14.0%), 스위스(13.2%) 등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 슈라이커가 지적하듯 미주와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이미 국제화 경쟁이 시작된 지 오래이며,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각 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 학생 이동은 그 범위와 규모가 더욱 더 커질 것이고 그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유학생 유치 경쟁이 확대되고 또 갈수록 그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해야 이 경쟁에서 선전할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할 때이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세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도 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그림 12>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한 기초적인 능력보다는 갈수록 인식적이고 분석적이며 쌍방향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의 고등교육이 이러한 세계 시장의 변화하는 기대에 부합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먼저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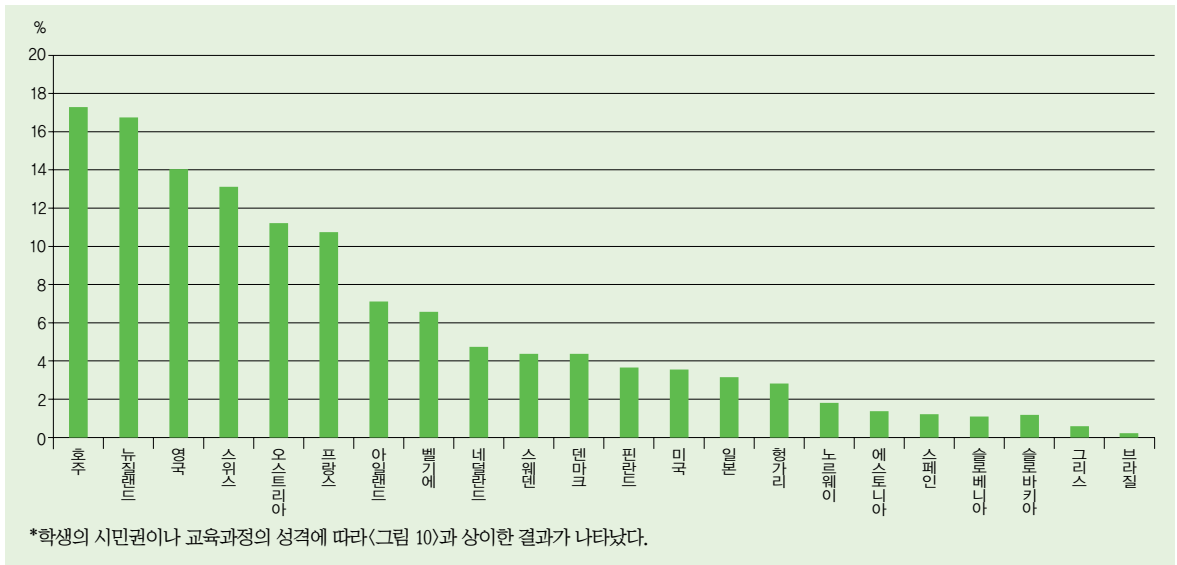


그림 11. 고등교육 분야 국제 학생 이동(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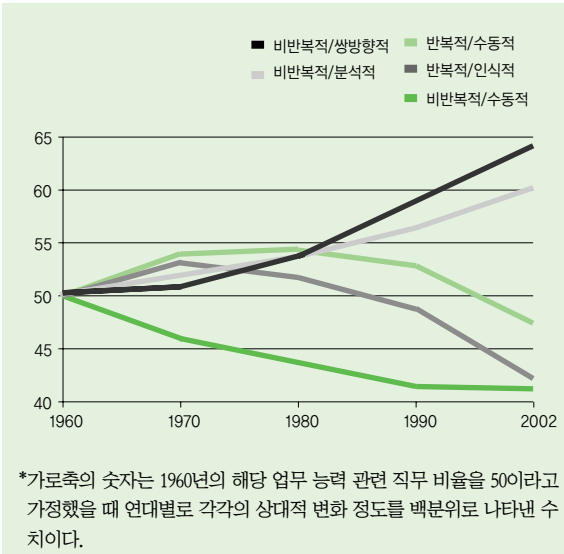


그림 12. 직무의 성격에 따른 수요 변화(미국, Levy and Murnane)

한 현실적인 대안 연구가 절실히라고 보여진다. 중요한 것은 교육 서비스의 대상이 더 이상 국내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므로, 개선과 개발의 방향이 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국제 비교를 통해 세계 고등교육의 현황과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일고 있는 변화에 대처하는 방향과 방법에 관해 논해보자. 슈라이커는 세계 고등교육의 미래적 이슈 중 중요한 한 가지로서 성과 평가를 통한 질 관리 문제를 제기하였다.

IV. 세계 고등교육의 질과 그 평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참여국은 세계 경제의 87%를 차지한다.

이들은 PISA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주어진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가를 평가하는 과거지향적인 쪽보다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바

탕으로 어떻게 추론하는가 또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독창적으로 잘 적용하는가를 평가하는 미래지향적인 쪽을 선택했다.

고등교육 성과의 국제 비교

현재 세계 고등교육계에서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보다는 사회집단적 압력이나 공적 책임감에 관련된 사안들이 훨씬 더 중요시 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간 경쟁 및 비교를 피할 수 없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였다. 고등교육 성과의 국제 경쟁 및 비교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개인들이 보다 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둘째, 대학들이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셋째,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고급 인력의 축적과 유통을 수량화함으로써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 성과의 국제적 평가와 그 소요 비용

고등교육 성과의 국제적 평가를 실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고등교육의 성과를 정의하고 운용하는 기준은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기관, 시스템, 문화를 넘나들며 용인될 수 있는 포괄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합리적면서도 유효 적절한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의 평가 틀을 갖추는 데에는 분명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는 쪽을 택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슈라이커의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고등교육 성과 평가는 결국 해당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었는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를 이끌게 될 것이고 그 같은 평가 결과는 기이한 서열화를 계속해서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없는 등급 매김은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므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결국 유효하고 타당한 평가의 틀을 갖추는 쪽이라 하겠다.

다차원적 질 관리 공간 수립 필요

고등교육 성과의 질을 평가하는 수량화된 평가기준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질 관리 공간을 성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공간이 일단 생겨나면 세계 도처의 고등교육 시스템, 기관, 학부, 학과가 다양한 차원에서 각자의 강점에 따라 이 공간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교육 소비자 개개인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위치한 교육 공급자들을 비교하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관을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질 관리 공간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강점을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면 한 기관이나 정책의 방향 또한 좀 더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

평가 영역 및 평가 보고서

평가 관련 영역에는 학습결과의 직접적 평가, 졸업생 평가 혹은 소비자 인식도, 인력시장 및 사회적 성과 측정을 통한 평가, 성공적인 학습과 성취의 결과로 판단될 수 있는 제도적인 요소와 그 외 여러 가지 비인식적 요소를 통한 평가, 기관의 효능 평가, 연구 결과의 직·간접적 평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질 관리 프레임워크 내에 평가 보고서와 관련된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평가 보고서를 통해 여타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격려하고 고무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평가 수행 과정에서 선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다면, 지식 경쟁력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다자간의 이해를 얻어냄으로써 고등교육 성과의 국제적 평가가 타당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 대상 항목

우선 먼저 해당 학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경쟁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 같은 평가의 장점은 많은 요소들을 학부나 학과 내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상당히 분화된 평가 도구를 필요로 하며, 대규모 평가의 틀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타 문화와 언

어의 경계를 충분히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미 국내 차원에서 측정이 이루어져 평가에 더해지는 가치가 미미하다는 약점도 있다. 전자공학, 생명공학, 경제학 등 한 개 학과를 대상으로 이 같은 평가가 실행될 수 있으나 여러 개 학과의 동시 평가가 더 선호된다.

다음으로는 해당 학과가 속한 보다 큰 그림 안에서 상위 단계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분야의 경쟁력 또한 평가해야 한다. 이 같은 평가는 특정한 직업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에 관계없이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 학부, 학과를 아우를 수 있으며, 학과 내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강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누적된 학습 효과를 반영하며 선행된 학습이 관련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많은 고등교육 기관, 학부, 부서에서 관련 영역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평가 시 중요 사항

고등교육 성과의 국제 평가는 학과 내 학습내용 이상의 것들을 평가해야 한다. 배운 바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능력과 그 능력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해당 학과의 관련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경쟁력 측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해당 학문 분야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가 간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문 분야 내의 변화들을 재빨리 인식해내고 노동시장과 경제상황 및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도구들을 개발해내는 미래 지향적인 학습 성과의 평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 성과의 외적 유효성을 평가할 때 항상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평가 수행 시 좁은 시야는 지양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평가의 틀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효율성을 위해 정보수집의 범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성과 평가 결과 기술에 있어 기본적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의 활용

미래의 입학생 또는 노동시장의 고용자는 한 기관, 학부, 학과의 학업 성과 및 성취에 있어서 '최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 결과를 통해 알고 싶어할 것이다. 또한 개개인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한 고등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의 영역이 평가되기를 원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입학생과 졸업생의 성취도 간의 유기적 관계라던가 재학 중 성적 및 시험 관련 사안, 혹은 한 학생이 대학 입학 전에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능력 훈련 환경 등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개인 그리고 기관 차원의 폭 넓고 적절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평가 과정이 우수한 사례를 발견하고 소개하며, 공통된 당면과제들을 파악하고, 연구진과 교수진 간의 협력 및 협조 능력을 고취하는 효과적인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슈라이어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 필요성에 관해 세 가지 관점에서 역설한다.

첫 번째 관점은 고등교육 분야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칫 국가의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 빠른 기술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교육연수 일년 당 GDP 3-6%사이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다룬 바 늘어난 대학 학위 취득자 수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과 혜택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고등교육 분야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두 번째 관점은 사회적 공평성과 관계가 있다. 경제적

발전에는 항상 사회적 불균형이라는 부수 효과가 발생하는데, 고등교육을 통해 배양되는 개개인의 능력이 이러한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꾀하려면 사회 구성원 전반에 걸쳐 일정 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능력 배양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요 비용과 이에 합당한 가치 창출에 관한 점이다.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위해 투자된 경제적 비용과, 교육 성과의 평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 이 같은 투자의 효율성 및 효과, 그리고 교육 공공재를 향한 끊임없는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의 질 관리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것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금껏 놀랄만한 발전과 자랑할만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이는 한국 대학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한 밑바탕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한국의 대학들은 슈라이어가 제시한 바와 같은 세계적 추세를 늘 주시하고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서 동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정보통신혁명과 국제화로 인해 고등교육 서비스의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양질의 것으로 발전시키고 또 이를 세계 고등교육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며, 이를 통해 급증하는 새 세대의 교육 수요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은 자못 분명해 보인다.

정리_한서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



미니인터뷰 1

시라이 가쓰히코 / 와세다대학교 총장

1. APAIE 회의를 와세다대학에서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회의 개최는 와세다대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번 APAIE 회의 개최로 와세다대학을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와세다대학은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대학들과 더 많은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모인 모든 관계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향후 이 지역에 강하고 결속력 있는 국제교육 네트워크 체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2. 와세다대학이 국제화 분야에 갖는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는 본격적인 국제화를 위해 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교양학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각종 교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아태지역의 모든 대학은 질 좋은 교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고 또 교류의 내용을 다양화 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발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더 치밀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국제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성립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과 일본 간 대학 교육 분야 협력에 관해 논해 달라.

양국은 국가 간 차원에서 그리고 각 학교 차원에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저마다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 유학 오는 한국 학생은 그 수가 꽤 많지만 한국으로 유학 가는 일본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인 게 사실이다.

이런 교육 수출입의 불균형을 비롯하여 양국 간에 발생하는 또 다른 수 많은 문제점들의 배경에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예전의 아픈 역사가 그 저변에 깔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는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아픈 역사로 인한 불화를 씻고 양국 간의 진정한 화해와 교류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 지는 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4. 대학교육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두 말할 것도 없이 언어 문제일 것이다. 우리(일본)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상당부분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 나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언어·영어·문제로 인하여 많은 부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알고 있다. 언어가 국가간 교류 협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고 또 이를 뒷받침할 현명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사례를 배우며 공유할 수 있을 테고, 이를 통해 양국의 대학들은 함께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미니인터뷰 2

이기수 / 고려대학교 총장

1. 고려대학교가 최근 국제화 부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 보인다.

오는 5월 5일에 고려대학교 창립 103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강조될 두 가지 사항을 미리 말씀 드리자면 첫째는 화합 속 전진이며, 두 번째가 바로 국제화 강화이다. 세계는 지금 어느 영역이든 하나의 생활권 이내에 속해 있고 서로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런 추세 가운데에서는 어느 분야든 일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고려대학교의 국제화 방향의 특성은 많은 수의 외국 유학생 유치에 위한 인 바운드(in-bound)쪽 보다는 본교 학생에게 보다 많은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아웃 바운드(out-bound)쪽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미 KU-LA Campus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고려대의 이 같은 국제화 전략은 첫째, 학부모들의 마음을 더 잘 읽고자 함이며, 둘째, 입학생들의 바램을 더 잘 반영하고자 함이고, 마지막으로 장차 졸업생들을 맞이하게 될 수요자, 즉 취업 시장에서 더 신뢰받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목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명품 인재”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들에게 영어 능력은 필

수이자 기본적인 사항이 될 것이며 영어 외에도 각각 유럽언어와 아시아언어 한 가지씩을 마스터 하도록 하는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 연구를 최우선시해 왔던 교수진들에게 교육 쪽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독려할 생각이다.

2. 한 대학의 총장으로서 한국대학의 국제적 위상 혹은 국제화 지수에 관해 논해 달라.

최근 정부는 2010년까지 세계 대학 200위권 내 연구 중심 10개 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발맞추려면 우선 각 대학은 일단 국제화의 기본이랄 수 있는 언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에게 걸친 대학인구 전반의 언어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 외국 학교 간 협정에서 외교관 역할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먼저 언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야 비로소 상호 공동연구 등을 위한 보다 심화된 교류와 협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고려대의 경우 공대나 경영대는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서 있다. 또한 캐나다 UBC, 영국 London대학, 중국 인민대학, 상해대학 등과도 활발한 교류를 논의 중에 있다. 우리 학교 외에도 각 대학이 이와 같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리라 생각한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런 추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또 강화되길 바란다.

3. APAIE 대학총장 원탁포럼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 교육의 국제화가 진행될 수록 오히려 국가 간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의 기업들이 많은 부분 시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LG의 예를 들자면 매년 10명의 베트남 출신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와 주어지고 있고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지원이 좀 더 확대되고 다양화 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지적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미니인터뷰 3

이두희 / 고려대학교 교수, APAIE 회장

1. APAIE 국제회의의 개최 의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올해로 3회째를 맞은 APAIE 국제회의는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회의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는 물론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 등 총 53개 국 275개 대학에서 800여명의 참가자들이 등록하여 회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참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90여명 이상의 (부)총장급 인사를 비롯하여 관련 실무자부터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어 참가자의 배경 또한 훨씬 다양해졌다. 이는 APAIE가 창립 초기부터 추구해 왔던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져 매우 기쁘다. 이제 APAIE는 그 간의 이룩준비를 마치고 안전하게 비상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한다.

2. 참여 대학이나 기관이 APAIE 회의에서 특별히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APAIE는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같은 아태지역 내 국제교류를 표방하며 만들어진 고등교육 국제협력 기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여타 기관들-NAFSA(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AIEA(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 Administrators), EAIE(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과는 달리 APAIE는 한국이 리드하는 국제협력기구라는 점이다. 한국 대학들이 주어진 리더의 역할을 적절히 수용하여 감당하며 그 리더십이 가진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국제교육 분야에서 아웃사이드의 역할이 아닌 주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3. 대학의 국제화 면에 있어서 현재 한국 대학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다고 보는가?

사실 현재 한국 대학은 국제화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내에서만 보더라도 오랫동안 아시아의 교육 선진국으로서 이미 많은 부분 앞서 있는 일본의 대학들과 또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가 발전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대학들 사이에서 한국 대학은 아주 어중간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학과 같은 특정 분야가 아닌 이상 한국의 대학들에게 있어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란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지금 한국 대학은 우리만의 고유한 장점을 세계 무대에서 선점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단 시간에 걸친 놀라울 만한 국가 경제 성장은 아직도 분명 부각시킬 만한 강점이다. 이와 더불어 빠르게 뿌리내린 정치적 민주화 과정과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한 고등교육 수혜비율, 그리고 이에 따른 고등교육 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은 분명 국제 무대에서 조명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도국들에게 한국은 분명 의미있는 롤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에게도 나름의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국가 전체적인 접근을 그 배경으로 하되 각기 다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각 학교들은 저마다의 전략들을 가지고 꾸준히 그러나 공격적인 국제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한국 대학들이 국제교류 부문에서 채워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제화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 요즘의 국제화 추세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대학의 국제화는 국내용이 아닌 진정한 국제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국내무대가 아닌 세계무대에 설 수 있는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에 걸 맞는 질 좋은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어 강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비선택적 필요에 의해 생겨나야 한다. 여기서 대학의 영어 강의화를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짚어 볼 수 있겠다. 먼저 고려 대학교의 경우 전체 대학 수업 중 30-40%의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대학 전반에 걸친 영어 강의에 학생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의 경우처럼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과대학을 개설하는 것도 또 다른 한 방법이라 하겠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그 효용성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다양한 결과로 증명될 것이다. 현재 세계 각 국은 국제화를 향한 각자의 선로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한국의 대학들이 이 경기에서 절대 뒤쳐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_ 한서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